

부동산·인사 실패 사과...조국 가족 의혹 대처 반성도

민주당 대선주자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靑 인사수석 김의숙 책임론 제기
양향자 의원 거취 “출당” “신중”
“가장 실패한 정책은 주택정책”
열린민주당과 합당 찬반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일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 의혹의 민주당 대처 방향에 대한 반성론도 잇따랐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주최한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석한 예비후보 9인은 경선레이스에 임하는 포부와 정견을 발표했다.

이낙연 후보는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의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판단하고 청와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런 불신을 만들게 됐다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당 일각의 ‘김의숙 책임론’에 가세했다.

양승조 후보도 “공직농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배출한 것도 우리 정부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반성해야 하고, 검증시스템이 더욱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열린 양향자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 김두관 후보는 “출당 문제에 대해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했고, 박용진 후보도 “죄송하지만 지도부가 과감히 결심하시라. 출당조치가 맞다”고 거듭었다.

다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채 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광재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을 자제했다. 당 일각에서는 안팎에서 경제와 협공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자 몸조심’ 모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족 의혹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후보는 “내로남불과 정치적 위선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을 불신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후보도 “내로남불 측면에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엄호 발언도 일각에서 나왔다. 최문순 후보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사태다. 윤 전 총장은 대선에는 나와서는 안 됐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후보는 조 전 장관의 사법개혁 방향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최문순 후보는 “부동산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출당을 권유한 건 최근 민주당이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라며 “과거 서울·부산시장과 충남지사(성 관련) 문제에 관해서 사과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정세균 후보는 “주택정책에 회한이 많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에 아무 문제 없다’고 몇 차례나 말했나”라며 “두 분의 실책이 뼈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며 “이견이 있지만, 주로 오해거나 입장 차이. 사회적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빨리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힘을 합치는 게 좋다. 합당이 정권재창출에 도움

이 된다”고 말했고 이낙연 후보도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찬성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각각 총선에서 약속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이광재 후보는 정세균 후보와의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관측 보도에 대해 “만에 하나 진다면 남자답게 열심히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는 군소 주자들 간 단일화 및 경제 움직임에 대해 “후보들 간 연대와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가능하면 연대해보고 싶는데, 잘 안되긴 한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역강부약 정치로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

“강력한 경제부흥정책 즉시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된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에서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서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제도약의 기회

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면서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 합리화 ▲미래형 첨단 육성시스템으로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문화 예술 지원 확대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 및 북방경제 활성화 등도 강조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한 뒤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면서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면서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

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 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 정책과 관련, “실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친문 반감서 가족 욕설 논란까지 1위 이재명이 극복해야 할 과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에 공식 등판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도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화됐던 이 지사는 과거 욕설 논란 등 도덕성 검증도 돌파해야 한다.

이 지사로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친문 반감’ 극복으로 분석된다. 당의 주요 결정을 주도하는 친문과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현재 당내 1위를 지키고 있는 지지율을 ‘대세론’으로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당 주류인 친문에 남아 있는 반감 정서는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번 경선에서 친문 직계로 분류되는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지만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빛은 친문 세력과 같지만 융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형수 욕설 논란이나 여배우 스캔들 의혹, 포플리스트 등 인기영합주의 논란도 이 지사를 따라 다니는 리스크다. 보수 진영에선 욕설 녹취 파일을 내세워 충공세를 버리고 있다. 막말 논란을 빚어온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까지 “이 지사는 막말을 넘어 상욕하는 사람”이라며 도덕적 우위를 내세운다. 여론 주자들도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최근 “검증받지 않은 도덕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